

# 무시되고 있는

## 부로일러 사양의 문제점들

편 집 부

부로일러 사양관리는 일종의 소규모적인 경영이라 할 수 있는데, 사양관리상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사소한 일거리가 많지만, 그것들이 바로 육계생산을 좀더 경제적으로 하는 데 있어 없어서는 안되는 요건들인 것이다. 세부적인 면에까지 신경을 쓰는 양계가나 사육자는 성공할 것이고 부주의한 사람, 하찮은 일이라고 돌보지 않는 사람, 업무가 복잡한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실패할 것은 명확하다. 부로일러 산업에서는 관리자가 누구보다도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 현재의 많은 양계인들은 부로일러 산업이 경영, 사양 등 모든 면에서 통합되었던 때보다, 그리고 부로일러 산업에서 더 많은 이윤을 얻었던 때보다 자신들의 사업에 밀접하게 관여시 않고 있다. 현재 실제로 닭을 사육하는 사람들은 다음의 세 유형으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 (1) 자기 닭을 직접 사육하는 사람
- (2) 계약사육자
- (3) 고용인

조오지아의 부로일러업자들을 상대로 하여 얻어진 조사결과를 조오지아 대학에서 분석한 바, 부로일러 생산업자를 위의 세 유형으로 분류하여 그들의 작업능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의 일부분이 [표 1]에 나와 있다. 표에도

[표 1] 사육자의 유형에 따른 부로일러 체중비교

사육자 유형	부로일러 체중
닭 소유자가 직접관리	1.56kg
계약 사육자가 관리	1.54
고용인을 두고 관리	1.51

나와 있듯이 직접 닭을 사육하는 사람의 경우 부로일러의 체중이 제일 무거웠고, 그 다음이 계약사육자였으며 고용자의 경우가 가장 나빴

다. 위의 차이는 노동 자체의 형태 이외의 다른 요인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이 결과가 닭소유자 외의 다른 사육자들이 사육을 잘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면 더 많은 노력과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결과는 미국에서 얻어진 예지만 경영자가 관리자를 고용해서 부로일러를 사육할 때보다 세심한 주의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은 두말할 나위 없었다.

### 가. 입추 준비

부로일러 입추 전에 얼마간 계사를 비워두는 시간을 이용하여 계사와 부속건물을 깨끗이 하여야 한다. 계사에 닭이 없을 때에 소독을 함으로써 전염병의 주기적(週期的)인 발생을 예방할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계사를 비워두는 동안에 새로운 부로일러 병아리를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로 아래와 같은 사항이 필요하게 된다.

육추사와 각종 기구는 깨끗이 ; 될 수 있는 대로 청소는 철저하게 하여야 한다. 필요하면 소독약을 살포하고, 다음의 여러 관례에 따라 깔짚을 깔아도 좋고 그대로 두어도 된다.

깔짚, 오래된 깔짚을 제거할 경우 새깔짚을 넣어 주도록 한다. 깔짚을 그대로 사용할 때는 그 위에 새깔짚을 보충해 줄 필요가 있다. 깔짚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경제적인 것을 써야 함은 두말할 나위없다. 그런데 [표 2]에도 예시하듯이 깔짚은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이 표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또한 중요한 점은 수분흡수력이 부로일러 성장과 반드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표 2] 깔짚과 수분흡수와의 관계

깔짚 종류	깔짚 100g당 수분흡수량(gm)	부로일러 체중(kg)
솔짚 (pine straw)	207	1.51
낙화생껍질	203	—
소나무 대패밥	190	1.53
절단한 솔짚	186	—
왕 겨	171	1.57
소나무조각	165	1.62
소나무껍질과 조각	180	1.54
소나무껍질	149	1.54
옥수수 속대	123	1.62
소나무톱밥	102	1.62
진 흙	69	1.47

<미국 조오지아대학 가금학과 연구보고서>

**좋은 깔짚의 구비조건 :** 좋은 깔짚은

- (1) 무게가 가볍고,
- (2) 입자의 크기는 중간정도이며,
- (3) 쉽게 건조하고,
- (4) 부드럽고 탄력이 있으며,
- (5) 열전도력이 낮고,
- (6) 수증기 흡수가 적으며,
- (7) 저렴하고,
- (8) 퇴비로 판매할 가치가 있어야 한다.

**사료통은 청결하게 :** 사료통에 남은 사료를 즉시 치우고 사료통을 소제한 후 소독을 한다.

계사 및 육추사의 온도는 정확히 유지; 계사 및 육추사의 온도는 육추를 정상적으로 시작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유인전구 :** 샷갯형 육추기 사용시에는 처음 며칠 동안은 육추기의 열이 미치는 곳으로 병아리를 모이게 하기 위해 유인전구를 설치한다.

**육추기 보호대 ;** 대부분의 육추기에 병아리들이 열이 미치는 곳에서 활동하도록 육추기 보호대가 필요하다.

**육추사가 더울 때 ;** 재래식 육추방법을 쓰지 않고도 육추사가 전체적으로 더운 곳에서는 육추사내의 온도가 정확한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사료급여기와 급수기 ;** 병아리 운반용 상자 또는 그와 비슷한 물건들은 입추후 며칠 동안은 가장 좋은 사료급여기이며 급수에 가장 좋은 것이다.

#### 나. 병아리 도착시 할일

병아리가 도착되기 몇시간 전에 급수기에 물을 채워 넣어서 병아리가 도착될 때까지는 냉기가 가셔지도록 한다. 아울러 급수기 뚜껑에 신선한 사료를 뿌려놓는다.

병아리는 가능한 도착 당일날 일찍 도착시켜야, 병아리들이 당일로 사료먹는 것과 물을 마시는 것을 배울 여유를 가지게 되므로 가능한 아침 일찌기 도착하면 좋다. 만약 오후에 도착되면 반드시 2일 동안 밤에 전등을 켜서 사료 및 물을 먹는 것을 익히도록 해야 한다.

#### 다. 1일과 2일째 관리

1. 계사를 따뜻하게 할 것.
2. 모든 병아리들이 고르게 사료를 먹고 물을 마시는 지 확인할 것.
3. 병아리들이 육추기 보호대에 물리지 않도록 할 것.
4. 신선한 사료를 자주 줄 것.
5. 급수기 속에 들어 있는 사료부스러기 등을 제거할 것.
6. 첫 2일 동안에 병아리를 수시로 점검할 것.
7. 죽은 병아리를 가려내고 원인을 규명하여 치료할 것.
8. 야간에 육추기 온도를 점검할 것.
9. 독시둠방제계획이 서 있나 확인할 것.

#### 라. 3일과 4일째 관리

1. 48시간 후부터 밤새도록 밝은 불을 키지 말 것.
2. 야간에 육추기 온도를 점검할 것.
3. 매일 육추기 보온 패를 넓혀 줄 것.
4. 급수기를 매일 청결히 하고 일주일에 1회 소독할 것.
5. 4일째 더 큰 사료통을 사용하고 사료통 뚜껑도 계속 쓸 것.
6. 가끔 신선한 부로일러 스타터를 공급할 것.
7. 점등 시간이 정확한지 확인할 것.

#### 마. 5일~7일째 관리

1. 육추기를 따뜻하게, 육추사는 서늘하게 할 것.

2. 야간에 육추기 온도를 점검할 것.
3. 매일 급수기를 소제하고 일주일에 1회 소독할 것.
4. 더 큰 급수기를 사용할 것.
5. 처음의 급수기와 사료통을 점차 제거할 것.
6. 육추기 보호대를 치울 것.
7. 육추실 안으로 환기량을 점차로 증가시킬 것.

#### 바. 2주, 3주 및 4주째 관리

1. 사료통과 급수기를 차차 위로 올릴 것.
2. 사료소비량을 유심히 볼 것.
3. 사료섭취량을 매일 점검할 것.
4. 3주말에 육추기의 샷갯을 점차 위로 올릴 것.
5. 급수기는 매일 청결히 하고 일주일 1회 소독할 것.
6. 계사는 신선하게 유지할 것.
7. 환기량을 증가시킬 것.
8. 백신주사를 시작할 것.
9. 콕시듐병에 대한 예방을 철저히 할 것.
10. 사료소모량을 매일 기록할 것.

#### 사. 5주, 6주 및 7주째 관리

1. 급수기는 항상 청결히 하고 일주일 1회 소독할 것.
2. 급수기 및 사료통의 높이를 올릴 것.
3. 사료소비량을 점검할 것.
4. 손으로 사료를 주는 경우 하루에 2,3회 줄 것.
5. 날씨가 더우면 점등 시간을 연장한 것.
6. 5주말경에 부로일러 육성사료로 바꿀 것.
7. 환기량을 증가시키고 계사안에 공기를 오래 머무르지 않도록 할 것.
8. 한쪽이 개방된 계사일 때는 외기기온이 변화할 때마다 차단기구를 조정할 것.
9. 질병예방에 유의할 것.

#### 아. 8주와 9주째 관리

1. 급수기 매일 소제하고 일주일에 1회 소독할 것.
2. 급수기와 사료통의 높이를 높일 것.

3. 계사를 신선하게 유지할 것.
4. 환기량을 증가시키어 공기가 계사내에 머무르지 않도록 할 것.
5. 손으로 사료급여시 하루에 2~3회 급여할 것.
6. 기후가 더우면 점등 시간을 연장할 것.
7. 질병징후에 대하여 경계할 것.
8. 부로일러 출하시 닭을 놀라게 하지 말 것.

#### 자. 점등관리

부로일러에 필요한 점등 시간은 닭이 활동하면서 사료와 물을 보고 먹을 수 있을 정도면 된다. 닭의 활동을 최소한 줄이라는 것이다. 닭 수준에서 요구되는 조명정도는 약 0.5 축광(1휘트당)이다. 구조상 외부와 차단된 계사는 이 정도의 축광이면 되지만, 한쪽이 개방되거나 개방된 창문이 있는 계사는 햇빛 때문에 조명정도가 더 높다. 적정수준을 초과한 조명도는 카니벌리즘을 유발하므로 햇빛을 차단하는 어떤 방법이 강구되지 않는 한 개방된 계사는 비효율적이다.

부로일러 계사가 완전히 외부 햇빛으로부터 차단되면, 적색 전등을 사용시 카니벌리즘이 상당히 많이 없어진다. 이렇게 되면 부리자르기도 통상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계사의 한쪽이 개방되었을 때는 외부 햇빛이 비치는 시간을 보충하기 위하여 아침 저녁에 적색전구를 사용하여도, 닭들이 낮에 받은 강렬한 햇빛 때문에 쉽사리 어두운 빛에 적응할 수 없으므로 효과가 없다.

대부분의 경우 부로일러에 하루 14시간 정도의 일조시간이면 충분하다. 적정일조시간은 닭이 사료와 물을 가장 알맞게 섭취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이면 된다. 날씨가 의외로 더울 때, 서늘한 아침과 저녁에 사료섭취 시간을 추가로 주기 위해 하루 16시간의 일조시간정도면 효과가 좋다.

시장에 출하할 부로일러는 야간에 계사에서 꺼내는 것이 좋은데, 이것은 닭을 붙잡는 동안에 생기는 상처를 줄이기 위함이다. 약간 붉거나 파란 전등을 켜면 닭은 빨리 움직이지 못하지만, 사람은 쉽게 닭을 볼 수 있다. □